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I. 서론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플라스틱 성형 재료의 하나로써 1965년 개발되었다. 유리섬유로 강화한 PET성형재료는 열경화성 수지에 비견될 만큼 물성이 좋아 전자부품, 자동차 전장부품, 열기구 등에 사용되고 있고, 비강화 성형재료는 블로 (blow) 성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PET는 무독성, 무취, 투명도 등이 높아 현재 식품 용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 PET산업은 아크릴이나 나일론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섬유용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산업자재 용도로써 필름, 보틀 등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970년대 말 SKC에서 처음으로 PET필름을 제조하기 시작해 80년대 들어 자기용을 포함한 산업용, 포장용 등 PET필름의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1985년에 제일합섬이 자기용으로 PET 필름 제조에 참여했으며, 이어서 코오롱이 자기용 필름을 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PET 필름사업에 3파전 양상이 확립되었다.

초기 PET필름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의 자기재료용, 포장재료용, 전기재료용, 그래픽아트용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필름으로써 비디오, 오디오 등 자기용 단일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왔다. 자기용 외의 산업용 분야는 1994년부터 대대적인 증설이 이루어졌는데 1995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호황을 이뤘었다.

포장용 PET필름은 인스턴트 식품의 고급화 및 대중화로 인해 포장재료의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기존에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주로 사용되던 PP필름이나 OPP필름보다 투명성이나 인쇄성 등 품질 우수성이 있는 PET필름이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II. PET필름 수급 동향

(사)한국포장협회는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을 대상으로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의 NYLON필름 생산수급 동향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1. SKC

국내 최대의 PET필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SKC(주)는 12개 라인, 13만 6,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5,000톤을 수출하고, 81,000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최근 SKC 필름사업부는 원료 가격 강세와 LCD업황 부진으

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 2016년 한국 본사와 2017년 미국 법인을 구조조정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것이지만 SKC 필름사업부에서 PET필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SKC는 고기능성 PET필름 비중을 늘리고 CPI(폴더블 디스플레이용), PVB(자동차 안전유리용 필름) 등 새로운 종류의 필름을 개발해 PET필름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원가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외부 환경 역시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음료수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지나며 PET병 라벨로 쓰이는 열수축필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신제품 조기 출시 전망과 러시아 월드컵 영향 등으로 디스플레이 필름, 고기능 이형용 필름 등 전방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KC는 최근 고부가 스펙셜티 제품을 늘려나가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법인 SKC inc.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나선 SKC 에코라벨이 대표적인 예로, PET병 라벨용 열수축필름인 SKC 에코라벨은 PET병을 재활용할 때 떼어낼 필요 없이 함께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6년에 22% 수준이었던 고부가 스펙셜티 제품 비중은 지난해 27%로 늘었다. 올해 32% 가량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처럼 SKC는 공정 최적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원가를 줄이는 한편 고부가 제품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SKC inc.의 박호석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SKC 에코라벨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SKC의 솔루션”이라며 “SKC 인더스트리소재부문과 함께 중국과 유럽, 한국 등의 고객사에 SKC 에코라벨의 친환경성 등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2	135,600	55,000	8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87,600	36,000	51,000
(주)화승케미칼	2	15,000	4,000	12,000
효성화학(주)	3	56,400	5,600	50,000

2.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9개 라인에서 연간 87,000여 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600톤을 수출했고, 내수시장에 51,000톤을 공급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산업자재, 화학소재·필름, 전자재료, 패션·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듀폰과의 소송 이후 주력 제품의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펀본드, 특수 에폭시, POM 등의 증설분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신규 성장 동력인 CPI 필름 라인의 시운전 시기를 고객사 스케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로 변경하는 한편, 베트남 1차 PET 타이어코드 라인이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코오롱인더스트

리의 필름·전자재료부문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늘어날 것”이라며 “업황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전 분기 발생한 일회성 비용(재고처리비용)에 대한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고 예측했다.

3. 화승케미칼

화승인더스트리는 올해 2월 화승케미칼 법인을 설립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접착제를 비롯한 신발 분야에 주력하고, 화승인더스트리에서 분사한 화학산업군인 화승케미칼은 필름사업 부문을 강화, 일본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화승케미칼은 3개 라인 중 2개 라인을 가동 중으로, 전체 생산 능력은 1만 5,000톤에 달한다. 2017년에 국내시장에는 1만 1,000톤을 공급했고, 4,000톤을 수출했다.

화승케미칼 관계자는 “내수 경

기 악화로 내수량이 줄어든 대신 수출에 집중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수익 개선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불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특수제품 개발 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4. 효성화학

효성화학(주)은 1997년 PET 필름의 상업 생산을 시작, 현재 3개 라인에서 포장용·산업용·광학용 PET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5만 6,400톤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5,600톤을 수출하고, 90%에 달하는 5만 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효성화학이 판매하는 PET필름 가운데 국내 포장용 PET필름의 비율은 약 22%로, 로트간 품질 안정성과 납기 대응이 강점이다. 산업용 비율이 약 7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용도는 공업용, Window용, 광고용 등이다. 이 가운데 광학용은 약 7%로, 외관 및 내열성 등의 요구품질이

포장·산업용 대비 높다.

국내 포장용 시장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내용물을 날개로 소형 포장하는 추세가 강하다. 이에 매년 약 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포장용 PET필름시장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이지만, 요구 품질이 단순해 중국·아주·중동 등 저가 노동력 및 에너지를 활용한 저가 필름으로 인해 국내 필름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산업용 시장의 경우, 저품질 제품은 중국·베트남으로 이동되는 한편, 고품질 제품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되고 있어 전체적인 수요 변동은 크지 않다”며 “포장용 시장과 같이 요구품질이 단순한 산업용은 해외 저가 필름 유입으로 국내 필름은 경쟁력이 잃어가고 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기재용 등 요구품질이 높은 산업용 필름을 공급해야만 하는 것이 국내 필름제조사에 당면한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광학용 시장은 TV Pannel 제조사가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이용함에 따라 급감 중이고,

Display의 심플화 요구로 인해 고객이 요구하는 필름 두께는 갈수록 박막화 되고 있다”며 “일본의 예를 보아 향후 한국에서 범용 수준의 광학 Pannel 제조사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효성화학(주)은 현재 PET필름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제품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해외 저가 필름이 진입할 수 없는 고품질 필름을 개발 중이다. 2019년부터는 양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Ⅲ. NYLON필름 수급 동향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17년 2개 생산라인으로 1만 톤의 NYLON필름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4,000톤을 수출하고 6,000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나일론필름시장은 증설라인으로 인한 물량 초과 공급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심화,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가속되는 국제 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 관계자는 “2/4분기 경기침체(비수기)로 인해 필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성수기 및 4/4분기 진입 시에는 회복이 예상된다”며 “포장재의 고급화로 인한 사용량 증가 역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내수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증대해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신규 수요처를 개발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 관계자는 필름 성장 증감률을 7%/년으로 예측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개 라인에서 총 8,400톤의 나일론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용과 국내용 생산량은 동일하게 4,200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 관계자는 “나일론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나일론 타이어코드 수요가 PET 타이어코드 수요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며 나일론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NYLON필름을

[표 2] Nylon필름의 수급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200	4,200
효성화학(주)	2	12,000	5,400	6,60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0,000	4,000	6,000

생산하고 있는 효성화학은 현재 2개 라인에서 연간 1만 2,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해 5,400톤을 수출했으며, 6,600톤을 내수시장에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1인 가구 증가로 내용물을 개별 소포장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나일론 역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성장에 따

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중국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 공급 부족 현상이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일론필름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는 주요 제조사들이 올해 대규모 증설작업에 들어갔다. 동사 또한 중국 내 증설라인이 가동 중”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나일론필름시장은 증설라인 가동으로

공급량 과다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요구품질이 단순한 나일론필름 가격은 폭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예측했다. 이에 효성화학은 중국 증설라인을 풀 가동하기 위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시장에 대한 판매 확대와 더불어 세계시장 공략에 따른 수출 확대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2018년 나일론 필름 수요증가율은 6%/년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내수 소비 저하 분위기가 지속돼 2019년에는 저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

MEMBERS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에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